



Market Index / 7일

|                           |                         |                              |       |                              |                      |                             |                      |
|---------------------------|-------------------------|------------------------------|-------|------------------------------|----------------------|-----------------------------|----------------------|
| 코스피지수 ▲ 3137.41<br>+10.33 | 코스닥지수 ▲ 973.22<br>+4.59 | 유가(WTI, 달러) ▲ 59.33<br>+0.68 | 환율(원) | 1USD 1136.54<br>100¥ 1035.15 | 팔매 1097.46<br>999.55 | 1EUR 1353.28<br>1CNY 179.17 | 팔매 1300.48<br>162.11 |
|---------------------------|-------------------------|------------------------------|-------|------------------------------|----------------------|-----------------------------|----------------------|

# “월동채소 주산지 제주 김치산업 육성해야”

7일 도의회서 ‘김치푸드시스템 조사·자금률 제고’ 보고회  
도내 배추김치 제주산으로 만들면 2만7459t 농산물 소비

국내산 김치 자금률이 값싼 중국산에 밀려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월동채소류 주산지인 제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발효식품 김치를 산업으로 육성해 김치 자금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에서 소비되는 김치 재료를 제주산으로 전환하게 되면 로컬푸드운동 확산 계기는 물론 양념에 사용되는 채소류의 안정적인 생산 여건 마련과 고용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다.

영역결과 보고회가 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구를 맡은 제주연구원 안경아 박사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국내산 가격의 20~30%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김치 수입이 증가하며 김치원료가 되는 국산 농산물 가격의 폭락, 폭풍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16%로 추정되는 제주지역 김치 자금률이 35.2%로 높아지면 직접적인 생산유발효과는 27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4억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수입김치의 국내 유통량을 감안한 배추 자

급률은 2000년 101.3%에서 2019년 76.0%로 떨어졌다. 국민 1인당 연간 김치 소비량은 36.6kg(11종류)으로 추정되고, 1일 다소비식품으로 1위인 쌀 다음으로 많다. 제주지역 김치 소비량(2018년 기준)은 연간 총 2만6528t으로 담금 59.2%, 구입 40.8%로 추정된다. 도내 김치소비량의 75.3%를 차지하는 배추김치 1만9976t을 제주산으로 만들 경우 양념류 등 관련 농산물 소비량은 2만7459t, 재배면적은 604ha로 추정된다. 2011~19년 월동채소 시장경리와 면적조절량이 연평균 633ha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양이다. 현안연구 과제를 제안했던 현길호 위원장도 “한국의 김치 수출물량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기준 2만9628

t인 반면 수입은 30만6049t으로 10배 이상 차이나 김치 중추국의 지위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김치의 원료 조달부터 생산, 저장과 가공, 유통, 소비까지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면 안전한 소비자 식탁과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 16개(해성 인증기업은 10) 김치 제조업체의 연간 판매량은 2440t, 판매금액은 112억6300만원이다. 판매량의 70%가 도내, 나머지는 다른지역에서 판매된다. 특히 제주는 수입산 사용비율이 높은 외식업체가 많아 김치 자금률은 16.0%로 다른지역(43.5%)보다 현저히 낮다. 40%가 중국산, 43.5%는 타지역 공급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내 중기제품 판매 등 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4개 협약기관과 손잡아 중소기업들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수출상품 판매홍보관’에 입점할 협력업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JDC와 한국공항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주공항 중소기업 수출상품 판매홍보관 사업’을 기

획했다. 제주공항 판매홍보관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주지역 14개 내외, 제주 외 지역 6개 내외로 선발해 상품은 제주공항 내 입점기업과의 상생을 고려해 구성할 계획이다. 판매홍보관에 입점된 협력업체는 ▷상품 전시·판매 기회 제공 ▷입점 수수료 면제 ▷수출교육·컨설팅 관련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협력업체와 상품은 5개 협약기관 및 지역 지원협의체로 구성된 상품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드론제어 실력 뽐내볼까?” 2021년 제주기능경기대회 5-9일 도내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7일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 진행된 산업용드론제어 부문에 참가한 6개팀이 드론 비행에 앞서 GCS 구성 및 하드웨어 설정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제공

##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

노후·불량 주택 개량이나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150동 중 잔여물량 40동에 대한 추가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용자 지원하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건축 시 최대 2억원, 건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특히 사업대상자는 12월말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윤형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 3번 막은 지점장

오상봉 농협은행 지점장  
고객 돈 1420만원 지켜내  
2018·2019년도 피해 예방

오상봉(사진) NH농협은행 제주대학교 지점장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햇살론으로 전환해준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급하게 현금을 인출하려던 40대 고객의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오 지점장은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번째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7일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농협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던 40대 고객 A씨가 급박한 모습으로 영업점을 찾아 현금 1420만원의 인출을 요청했다. 평소와 다른 A씨의 모습

습을 이상하게 여긴 김미연 팀장이 그를 지점장실로 안내했고, 오 지점장은 A씨가 고금리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을 인출한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00저축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사기범 일당에 속은 것이다. 금융기관은 어떤 이유에서든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A씨가 금감원과 보증보험에 직접 전화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쉽사리 믿지 않자 오 지점장은 사기범에게 전화해 현금을 찾아가라고 할 것을 설득했고, A씨가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서야 사기당할 뻔한 사실을 인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농협은행 측은 밝혔다. 오 지점장은 “NH농협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고객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 국내 육성품종 백합 ‘루시퍼’ 인기몰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국내 육성품종 백합인 ‘루시퍼’가 농업인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백합 ‘조지아’는 꽃 크기가 작고 꽃이 줄기와 직각으로 피기 때문에 절화 포장, 운송과정에서 파손 등 품질 저하 문제가 존재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선발된 국내육성 품종 ‘루시퍼’는 자람새가 곧고 줄기 굵기도 적당하고 구부러짐이 없으며, 상향 개화형\*으로 유통 중 품질관리가 용이하다고 평가받는 신품종이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국내육성 백합 루시퍼 재배실증’ 결과 품질이 우수하고 상품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월평화훼작목반(반장 윤재근)과 함께 ‘루시퍼’ 품종을 지난해 11월 6일에 정식, 2021년 3월부터 수확해 저장 및 출하 실증을 추진했다.

실증 결과 줄기 길이 130cm로 출하 규격인 85cm를 훨씬 상회했고, 비교품종 ‘조지아’보다 10cm 정도 길고 꽃 길이(높이)도 2-3cm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줄기가 곧고 꽃송이도 2-3개로 적당해 상품성이 90% 이상이고, 꽃잎이 두꺼워 절단 후 수명도 길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일본 수출 부진 등의 어려움 속에서 전반적인 가격 하락은 아쉬운 점이 없으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경우 루시퍼 품종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윤재근 월평화훼작목반장은 “국산 품종 ‘루시퍼’ 중구 공급 체계가 확립되면 국내외 시장 점유율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술보급팀장도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귤, 팔사,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야마노스, 미나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공인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야마노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알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                  |               |
|------------------|---------------|
| ·카라향 1, 4년생      | ·고림조생 3년생     |
| ·유라조생 1년생        | ·하례조생 2,3년생   |
| ·레드향(무독) 1,2,3년생 | ·한라봉 5,6년생    |
| ·천혜향(무독) 2,3,4년생 | ·하귤 2,3,7,8년생 |
| ·궁천 1,2,3,5년생    | ·그외 다수품종      |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